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 과기정통부 장관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이동통신사 및 소액결제사와 함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고물가 환경에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타파하고,
국민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분야에서도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최근 통신사의 3만원대 5G 요금제와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를 유도하였습니다.

오늘 또한, 이러한 민생안정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힘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2.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의 의의

그간 금융채무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일부 경감받았으나,
통신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받을 수 없고
통신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비대면 금융거래, 구직활동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및 통신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더불어, 성실상환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미납된 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가 된 만큼,
이번에 마련한 방안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자활과 재기를 지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마무리 발언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및 통신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취약계층 재기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상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